



“우리나라의 불교의식은 교리·사상·문화·역사·예술등 모든 면에서 세계 어느나라 불교의식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어져 완성도가 높습니다”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화학과 심상현 교수(사진)가 <불교의식각론 9-수계작법>을 펴냈다.

심 교수는 “근자에 들어 원류에 접근한다는 미명하에 수계작법 의식을 등한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식을 등한시하는 것은 선조사님들의 공을 폄하하는 중대한 문제로 후학의 도리가 아닌 만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간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계작법 세계에서 가장 발달”

<불교의식각론9-수계작법>은 ‘사미집계’ ‘비구집계’ ‘비구니계’ ‘거사오계’ ‘종사영반’ 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사미집계’의 경우, 1574년(선조7) 안변 석왕사에서 개판한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 <삭발문(削髮文)>을 위시하여 안진호 스님 편역의 <석문의법>까지 수계작법에 관련된 현존 작법집을 두루 연구 검토하여 정리했다.

우리 전통 수계작법의 여섯 번째 제목인 ‘부좌와고광대상(不坐臥高廣大床)’으로부터 열 번째 제목인 ‘불비시식불양가족(不非時食不養家畜)’까지 그간 없었던 각 제목(戒目)에 따른 계승(傳頌) 등 계상(戒相)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뿐만 아니라, 계상 전후로 있는 각종 계승에 제목을 부여했다. 이는 실로 500년만의 첫 시도이다.

특히 <작법귀감>의 편자인 백파 금선 스님의 주(註) 하나 하나에 음(音)을 달고 해석을 가하여 한글세대

“의식 등한시하는 풍조 안타까워 ‘작법귀감’ 한글세대 위해 풀어 써 불교의식 시리즈 20권 발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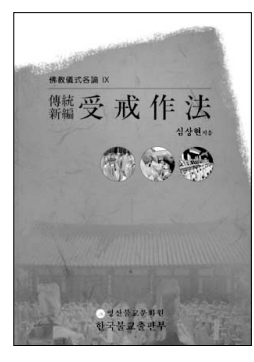
인 현대인들이 느끼는 한자의 장벽을 한껏 낮췄다. 이로써 시공을 뛰어넘어 계승에 대해 옛 어른들과 교감토록 했다.

‘비구집계’는 매우 생소한 느낌을 주지만, 비구계를 수지해야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즉, 사미집계는 삼업(三業) 가운데에 신업과 구업, 비구계는 나머지 의업(意業)을 함께 짓지 않도록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살계의 경우 십중금계(十重禁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로 구분하여 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논리를 구족계인 비구계에 적용할만한 자료가 될

만하다.

‘비구니계’와 ‘거사오계’는 백파 금선 스님 편 <작법귀감>에 보이는 계상(戒相)을 주(註)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요점을 간단히 살필 수 있게 했다.

오늘날 불법이 이 땅에 남아 있음이 모두 역대 조사 스님들의 노고인 만큼 ‘종사영반’의 중요성도 다루고 있다. 특히 스님으로서 해행(解行)이 다른 이의 사표가 될 만큼 원만하면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법맥을 이어받는 의식인 건당식(建幢式)도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큰 경사가 있음은 역대 큰스님들에 고함으로써



불교의식각론9-수계작법 심상현 지음 한국불교출판부 | 2만2000원

법백상속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건당식은 종사영반으로 거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 심상현 교수는 “앞으로 영산재와 점안의식에 관한 책도 준비중”이라며 “불교의식관련 시리즈는 20권까지 발간될 것”이라고 밝혔다. (02) 2278-2240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후기 인도불교 깨달음의 길

요가행자의 증지 우제선 지음 | 무우수 | 1만5000원



인도불교에서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 가장 체계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학파가 요가행파이다.

이 학파의 지류 가운데 후기 인도불교의 대미를 장식한 뿌라나나 학파는 깨달음을 어떻게 인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학파의 확립자이던 인도철학사에서 최고의 논사로 일컬어지는 다르마키프리다 다룬 깨달음과 이것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설명한 것을 개념화한 것이 <요가행자의 증지>이다.

<요가행자의 증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인도 논자들의 증지에 대한 이해를 개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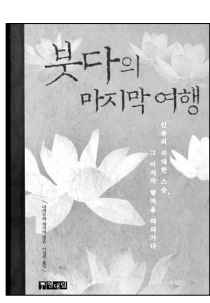
둘째는 이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즈나나스리미프라의 <유가사결정론>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증지의 이해를 선수행과 견주어 보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우제선(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5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인도 논자들의 증지에 대한 이해를 개괄하고, 증지의 이해를 선수행과 견주어 보고 있다.

부처님 마지막 행적을 좇다

붓다의 마지막 여행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 이경덕 역 열대림 | 1만3500원



인간은 누구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운명은 무엇이고, 죽음을 왜 찾아오는지, 죽음을 넘어 영원의 세계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문이 들 때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인생이라는 무상한 바다에서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인류에게 참 지혜를 밝혀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정보와 속도로 평가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불교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부처님 역시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인간의 삶을 살다간 우리 곁의 성자이다. 다만 부처님은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함으로써 후세인들에게 큰 모범이 됐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涅槃)’을 다룬 책은 여러 언어로 전해지는데, 이 책은 팔리어로 전해지는 경전을 일본의 종교철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가 번역한 것이다.

큰스님들 가르침이 그림다

서옹·석주·구산 스님 등 현대 선지식 법문 모아



선지식(1-6인 큰스님법어집) 김길상 엮음 흥법원 | 2만5000원

“‘불립문자’는 문자를 못쓴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감성적 문자는 못쓴다는 것이다. 높은 차원에서는 문자가 바로 참모습의 작용이고 표현이니 문자를 얼마든지 사용해도 무방하다. 선종계통에서 문자로 된 어록이 다른 종파보다 더 많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다.”

조계종 종정과 백암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의 가르침 내용이다.

선이란 무엇이고, 화두와 공안은 무엇이며, 견성이란 무엇인지, 깨달

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견성과 점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일반인들과 불자의 의식은 끊어 없다.

하지만 모든 의식을 수행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문자를 통한 수행의 이해도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지금 나와있는 선서나 법어집도 문장과 논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왜냐하면 선에 대해 설명하려면 역설적 언어나 문자를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출판 흥법원이 발간한 <선지식>은 누구나 쉽게 불교와 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대 한국 불교의 큰 별이었던 큰스님들이 투철한 수행을 바탕으로 예리한 관찰과 현대적 사유논리방식에 의한 일상적인 언어로 서술한 내용을 수록했다.

제1권에는 석주(前 조계종 총무원장), 구산(前 송광사 방장), 서옹(前 백암사 방장), 월산(前 원로회의 의장),

월하(前 조계종 종정), 경산(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등의 법문을 수록했다.

제 2권에는 서암(前 조계종 종정), 해암(前 조계종 종정), 송산(前 조계종 원로의원), 광덕(前 불광사 법주), 일타(前 조계종 원로의원), 성준(前 조계종 감찰원장) 스님의 법어를 모았다.

<선지식>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스님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 더 반갑다. 김원우 기자

韓·中 정토종 사상과 수행법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 이태원 스님 지음 | 운주사 | 2만5000원



정토학은 어떤 학문이며, 불교사에서 정토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정토의 본질 중 하나인 장엄의 동기와 목적,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행 중에 제일

인 염불은 경과 논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염불수행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정토의 본질과 교학발전>은 중국과 한국 정토종의

사상체계와 수행방법에 대한 연구서다.

이 책은 정토학 연구에 매진해온 중암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인 이태원 스님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정토학 전반에 대해 폭넓고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수행방법으로서의 정토신앙이

염불신앙으로 고착화되며 한국에서 하근기로 터부시 받고 있는 인식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염불신앙, 정토신앙을 당당히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것.

책의 내용은 정토교의 위치, 본원과 장엄, 경론과 정토교사에 나타난 염불, 염불 수행법과 자세, 정토 왕생지의 마음가짐, 중국 초기 정토신앙, 담란의 정토관, 천태종 지례의 정토수행관, 원효의 일심관과 정토관으로 되어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아름다운 절 아름다운 스님 이연경 외 공저, 1만2000원, 민족사
- 까말라실라의 수수차체연구 중앙 목련 외 공저, 2만원, 불교시대사
-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스펜재 외 공저, 1만900원, 비제
- 법성계 강의 석우스님, 1만3000원, 여래
- 부처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라 범상스님, 9500원, 도솔

도서주문 (02)2004-8219

당신을 살리는 내면의 울림!

바이로차나

출판사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세차게 고개를 내저었던 문제의 원고, 그 어떤 스님도 쉽게 서문 써 주기를 꺼려하며 손사래를 쳤던 그 화제의 원고가 百思千議 끝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생세계의 혁명가라 불리어지는 공파스님의 거침없는 필치와 파격적인 卍正은 어정쩡하게 세간과 출세간의 名相만을 즐기는 당신을 전율에 떨게 하고 소름을 돋게 만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심이 않고 의지가 박약해 불교의 표면만을 겹들고 있는 당신을 강직하면서 순박한 불자로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연과 극락세계 1·2·3 그리고 천수경의 원본경전 등 주옥 같은 작품을 내 놓을 때 마다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파스님의 새로운 역작 바이로차나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펴시고자 하셨던 원초적인 말씀과 현재의 이 불교가 얼마나 그것과 현격히 동떨어져 있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그 나아가 바의 길을 상세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공파스님 역해 | 350쪽 | 값 10,000원



맑은 소리로 맑은나라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교전문 출판사 (051)244-0263